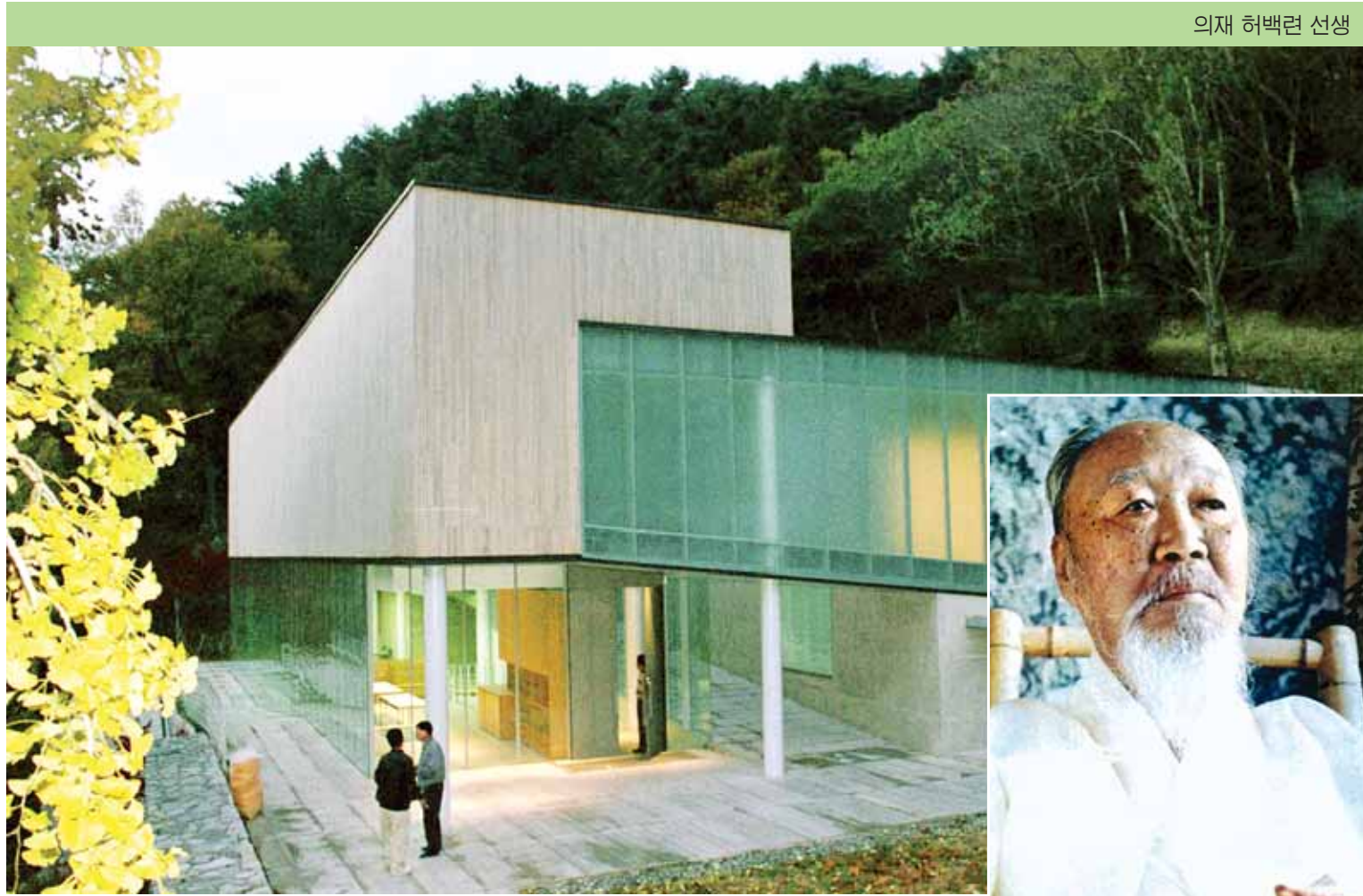


수려한 산세, 문학·예술의 텃밭...시인·묵객 무수히 배출



의재 허백련 선생

의재미술관 전경.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
인상주의 미학 수립 '오지호 화백'
방랑시인 '김삿갓' 흔적 고스란히



오지호 화백



오지호 화백 생가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㉔ 예향의 산실

광주시민과 함께 해온 무등산 자락 곳곳에는 '예향' 광주를 빛낸 인물들의 향기와 흔적이 짙게 배어있다. 방랑 시인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 바로 무등산 동쪽 기슭이고,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은 물론 오지호 화백도 생의 마지막까지 무등산과 함께했다. 무등산 자락에 남아 있는 예향의 인물과 흔적들을 소개한다.

◇의재 허백련의 출생현·삼애학원

증심사가는 길목 동네인 광주시 동구 운동동에는 의재 허백련(1891~1977) 선생이 화실로 쓰던 출생현이 있다. 출생현은 지난 1986년 9월 29일 전남도 기념물 제85호로 지정됐고, 광주시로 관리가 이관된 후 1986년 12월 16일 광주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관리는 의재의 자손이 맡고 있다.

출생현은 명사들의 교류의 장이었다. 또, 항상 문이 개방돼 있어 의재를 존경하는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의재는 출생현에서 육당 최남선을 비롯한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그리고 차를 사랑하는 다인 등을 두루 만났다. 소설 25시의 작가 비르질 게오르규 부부도 이곳을 다녀갔다. 의재는 또 소승 김정현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가 이곳에서 배출했다. 의재는 광복 후 무등산 천제단에서 개천 절 제향을 복원해 국조 단군 숭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노력하기도 했다. 의재는 또 일본인이 경영하던 다원을 인수해 삼애다원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 차밭 아래에 있는 별장을 인수해 삼애학원을 설립한 뒤 1947년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도 만들었다. 광복 후 혼란을 극복하고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농촌의 발전과 근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이 삼애학원(구 농업학교) 자리에는 의재 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남종화의 대가로 한국 화단의 발전을 한 획을 그은 의재는 만년에 무등산 자락에서 스스로 의도인(毅道人)이라는 아호를 쓰며 도인의 삶을 누리다 1977년 2월 14일 생을 마감했다.

◇오지호 화백의 초기집

한국 근현대 화단에서 인상주의 화풍의 대표작가인 오지호(1905~1982) 화백은 무등산 아랫마을인 동구 지산동의 초기집에서 작품활동과 함께 후학 양성에 힘쓰다 1982

년 12월 25일 향년 77세의 생애를 마쳤다.

오 화백은 우리나라 자연이 지닌 맑고 명량한 풍광을 인상주의에 결합시킨 인물로 활달하고 생기 넘치는 특유의 붓 터치와 미묘하게 변화하는 색감으로 한국적 풍토에 맞는 인상주의 미학을 수립한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다.

오 화백은 1948년부터 광주에 정착해 조선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후학을 가르쳤고, 호남지역 미술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6·25 전쟁 때 작품이 불에 타 없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단순한 형태와 강렬한 원색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말년에는 유럽여행의 감흥을 분출시킨 자유분방한 필치의 작품을 다수 남겼다. 오 화백은 작품활동이 외에도 문화재 보호 운동에 앞장서는가 하면 양심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쳤고,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문을 신문에 발표하기도 했던 앞선 지식인이었다.

마지막까지 무등산 초가집을 떠나지 않았던 오 화백은 생전에 무등산을 "무던히 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냥 어머니 산이며, 슬픔과 기쁨과 울분을 순화시켜 주는 산"이라며 "뭣났어도 내 고장이면 좋은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좋으니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오 화백의 지산동 초가집은 1986년 전남도 기념물 제96호로 지정됐다가, 그해 12월 광주시 기념물 제6호로 됐다.

◇방랑시인 김삿갓 시비

'(무등산고송하재 無等山高松下在)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심사상류 赤壁江深砂上流) 적벽강이 깊다 하되 모래 위에 흐른다' 이 시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남긴 수많은 시 가운데 유일하게 무등산과 적벽을 읊은 시로 알려지고 있다.

무등산 석곡수원지 인근 청룡쉼터에는 '김삿갓'으로 불려진 난고 김병연(1807~1863)의 시비가 있다. 삿갓 모양의 비석을 얹고 있는 시비는 지난 1978년 10월 22일 준공됐으며, 시인 허연이 비문을, 큰 글씨는 일중 김충현, 작은 글씨는 김철근이 썼다. 김삿갓의 시비가 무등산 자락에 세워진 이유는 그가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 무등산이기 때문이다.

전국 방방 곳곳을 떠돌며 풍자적이고 해학적이지만 깊이 있는 시를 남겼던 김삿갓은 1863년 3월 29일 57세의 나이로 무등산 동쪽 자락 동북 땅 물영지적벽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순군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김삿갓이 숨진 절벽 물영지적벽에 사당과 안채·사랑채 등을 건축하기도 했다. 청룡쉼터에 세워진 시비에는 김삿갓의 대표적인 금강산시가 새겨져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인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시로 남겼지만, 특별한 기교 없는 간결미와 진솔한 이미지로 금강산의 절경을 한 폭의 동양화로 옮겨왔다는 평가와 함께 그의 대표 시로 꼽힌다.

(송송백백암암회 松松栢栢岩岩廻) 소나무와 소나무, 잣나무와 잣나무, 바위와 바위를 돌고 도니 (수수산산처처기 水水山山處處奇) 물과 물, 산과 산, 곳곳마다 절경이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고 임직순 작 '무등산 풍경' (1985년)

캔버스에 오일(45.4 x 53cm)

호남 화단의 거목인 고 임직순 화백은 강렬하면서도 따뜻하고 정겨운 그림을 그렸다. 1961년에는 조선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광주 무등산 풍경과 시골 풍경을 주제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임 화백은 무등산을 편안하지만 탄탄한 조형성과 화려한 색채로 표현했다. 자연에 의미를 두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자연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작품들이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완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볼골레
V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